

## 기혼 여성의 부부 적응도와 성격 차원간의 연관성

이효근\* · 조숙행\*<sup>†</sup> · 김정웅\*

### Relationship between Dyadic Adjustment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Married Women

Hyo-Geun Lee, M.D.,\* Sook-Haeng Joe, M.D.,\*<sup>†</sup> Jung-Woong Kim, M.D.\*

#### 국문초록

##### 연구배경 및 목적 :

결혼은 인생의 주요 사건 중의 하나로, 개인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의 근원이며 결혼 생활의 적응은 개인의 대인 관계 및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의 성격은 결혼의 안정, 만족, 행복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 차원은 부부간의 적응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방 법 :

기혼 여성 17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DAS, EPQ, BDI 및 STAI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Pearson의 적률 상관을 통해 각 자료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통해 불안과 우울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부 적응도와 성격 차원과의 관련을 보았다.

##### 결 과 :

연령과 결혼 기간이 증가할수록 애정 표현과 응집도는 감소하였다. 학력의 증가에 따라 전체 부부 적응도와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가족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체 부부 적응도 및 만족도, 일치도, 응집도가 증가하였다. 부부만 사는 가족은 전체 결혼 적응도, 만족도, 응집도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그리고 기타 가족이 포함된 확대 가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병적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일치도, 만족도, 애정 표현, 응집도가 감소했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만족도, 일치도, 애정 표현이 감소하였다. 외향성과 허위성은 전체 부부 적응도 및 하부 요인과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과 불안을 통제된 상태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전체 부부 적응도, 만족도,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 론 :

연령, 결혼 기간, 학력, 소득, 가족형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및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의 성격 차원이 부부 적응도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 상태를 매개로 하여 부부 적응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성격은 부부간의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결혼 문제를 다룰 때 치료자는 개인의 성격 측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up>†</sup>Corresponding author

있었다. 향후 정상 대조군과 정신과 질환군 간, 그리고 부부간에서는 성격 차원에 따른 부부 적응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결혼 · 성격.

## 서 론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으로 개인의 인성이 형성되는 요람이며, 결혼은 한 남녀의 결합 이외에 관습, 도덕, 태도, 이념과 이상의 총체이자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 제도이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가 여러 가지 가족 문제에 대한 적응 및 사회적 제약과 통제에 대한 적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즉 결혼 생활이란 끊임없는 적응의 연속이다<sup>1-3)</sup>. 그러나 부부의 태도 중 일부는 그들이 공통된 문화 속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으나, 다른 일부는 공유되지 않은 사회 경험에 기인하기 때문에 남녀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더군다나 현대의 가족은 대가족 중심에서 점차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결혼 생활에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도움과 제재보다는 점차 부부 간의 관계 자체가 결혼 생활의 성공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sup>4,5)</sup>.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의 상승, 문제 가족, 해체 가족의 증가 등은 부부 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혼율을 보면 1987년 혼인건수는 376,698쌍이고 이혼건수는 42,375쌍으로 혼인에 대한 이혼율이 11.2%이었는데 1997년에는 한 해 혼인건수 310,536쌍이나 이혼건수는 74,642건으로 24%의 이혼율을 나타내며, 10년만에 이혼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97년 한해동안의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8.1명인데 반해, 이혼율은 2.0명으로서 4명이 결혼하여 1명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7)</sup>.

결혼은 인생의 주요 사건의 하나이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의미의 근원이며 결혼의 일차적인 동기는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누구와 결혼하고 또 어떤 결혼이 성공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의식적인 요소와 무의식적인 요소가 개입되는데, 특히 무의식적인 요소에는 근친상간적 요소와 신경증적인 요소가 있다. 결혼은 하나의 영구적인 결속으

로 간주되고 있지만, 성공치 못한 결합으로 끝날 수도 있으며, 별거 또는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개인이 지닌 신경증적인 것이다<sup>8)</sup>.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간의 적응은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부부는 경제적 문제, 성생활 불만, 육아, 시댁과 처가 문제 등의 여러 원인으로 서로간의 불화를 유발한다<sup>9)</sup>.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 통계학적 요인 및 여러 가지 내외과적인 질환<sup>9-12)</sup>, 정서 장애 등<sup>13-17)</sup>이 부부간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 기능 등 여러 가지 사회심리학적 요인들도 부부간의 적응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sup>18,19)</sup>. 결혼에서의 부적응은 이처럼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부 쌍방 혹은 어느 한 쪽의 심리적 미성숙이나 성격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개인의 성격이 부부간의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 내적 통제성, 성역할 정체성 등의 성격 특성이 부부 적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sup>20-23)</sup>.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Eysenck의 성격 이론은 종래의 성격 검사와 같이 단순한 성격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차원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검사로서 개인들 간의 성격 차이가 신경생리학적 구성상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는 생물학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4대 기질 이론과 현대 경험적 성격이론의 복합체로서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심리검사를 여러 계층의 피검사자에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론들과 다르다<sup>24)</sup>.

본 연구에서는 부부 적응도 검사와 Eysenck 성격 차원 검사를 통해서 일반 기혼 여성에게 있어서 부부 적응도와 그 하위 요인인 만족도, 의견일치도, 응집도 및 애정 표현 등이 성격 차원의 각 요인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서울 인근 신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중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모집된 215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중 총 18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회수율은 84.2%이었다. 이들 중 설문지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응답을 한 11명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7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상기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으로 연령, 교육 정도, 결혼 기간, 자녀의 수, 동거 가족의 형태, 시부모나 친정부모와의 동거 여부, 자녀의 결혼 상태, 종교, 직업, 가족의 수입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부부 적응도, 성격 차원, 그리고 불안 및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 1) Eysenck's personality questionnaire

성격 차원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Eysenck와 이현수<sup>25)</sup>에 의해서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아이젠크 성격 차원 검사(Eysenck's Personality Questionnaire, 이하 EPQ)를 사용하였다<sup>26)</sup>. 이 검사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및 허위성(lie)의 네 가지 성격차원(personality dimension)을 측정하는 검사로 전체 7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아니오(0점)로 반응한다<sup>27,28)</sup>.

#### 2) Dyadic adjustment scale

부부 관계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이하 DAS)를 사용하였다. 부부 적응 척도는 1976년 Spanier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서, 결혼 관계에서의 적응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로 알려져 있다<sup>29)</sup>. 이 검사는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1) 부부간의 의견 일치도(dyadic consensus), 2) 부부간의 만족도(dyadic satisfaction), 3) 부부간의 응집력(dyadic cohesion), 4) 애정

표현의 정도(affectional expression)를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는 가중치가 다른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따라 0에서 1 혹은 0에서 6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에서 0점에서 151점까지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적응도가 높음을 나타낸다<sup>30)</sup>. 이 도구는 부부간의 특정한 문제 영역을 심도 있게 측정하거나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면에 있어서는 취약하지만, 전반적인 부부 적응도를 평가하고 부적응 집단을 변별하는데는 그 효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sup>31,32)</sup>. 본 연구에서는 이민식과 김중술의 DAS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이민식과 김중술의 DAS 한국 표준화 예비 연구에서 32개 문항과 전체 척도 및 4개 하위 척도에서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입증된바 있다<sup>30)</sup>.

#### 3) Beck depression inventory

연구 대상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민규 등<sup>33)</sup>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를 사용하였다. 이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우울증 척도이다.

#### 4)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연구 대상의 불안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이하 STAI)를 사용하였다. STAI는 Spielberger가 제작한 것으로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불안 척도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는 상태 불안과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개인차를 가지는 동거나 획득된 성향으로 보이는 특성 불안을 파악한다<sup>34)</sup>.

### 3. 자료 분석

연구 대상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네 가지 성격 차원 및 부부 적응도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각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네 가지 성격 차원과 부부 적응도의 네 가지 하위 분류 각각과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을 사용하였으며, 부부 적응도에서 불안과 우울의 영향을 통제하고 성격 차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9.0 for windows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 결 과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연구 대상 집단은 서울과 서울 인근 신도시에 거주하

는 170명의 기혼, 혹은 동거중인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43.49세, 평균 교육 기간은 15.22년, 평균 결혼 연수는 17.38년, 평균 자녀수는 1.89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시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는 18명으로 전체의 10.6%이었으며 친정 부모와 동거중인 경우는 1명으로 전체의 0.6%이었다(Table 1,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I)

		Frequency	Percent
Age (year)	-30	17	10.0
	31-40	40	23.5
	41-50	64	37.6
	51-60	44	25.9
	61-	5	2.9
Length of marriage (year)	- 5	28	16.5
	6-10	20	11.8
	11-15	25	14.7
	16-20	28	16.5
	21-25	26	15.3
	26-	43	25.3
	None	0	0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1	0.6
	Middle school	2	1.2
	High school	28	16.5
	Junior college	10	5.9
	College	116	68.2
	Graduate school	12	7.1
	No answer	1	0.6
	Family income (won)	<500,000	0
500,000- 999,999	0	0	
1,000,000-1,499,999	4	2.4	
1,500,000-1,999,999	13	7.6	
2,000,000-2,499,999	13	7.6	
2,500,000-2,999,999	17	10.0	
3,000,000-3,499,999	19	11.2	
3,500,000-3,999,999	22	12.9	
4,000,000-4,499,999	20	11.8	
4,500,000-4,999,999	17	10.0	
5,000,000 and above	44	25.9	
Religion	No answer	1	0.6
	No religion	24	14.1
	Buddhism	18	10.6
	Protestant	117	68.8
	Catholic	10	5.9
	Others	1	0.6

**2. 성격 자원, 부부 적응도 및 우울과 불안의 기술 통계지**  
네 가지 성격 차원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평균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51.97 \pm 8.76$ , 신경증적 경향성이  $44.37 \pm 11.31$ , 외향성이  $50.89 \pm 10.85$ , 허위성이  $53.26 \pm 7.87$  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부부 적응도의 총점과 4가지 하위 요인의 평균은 총점이  $109.69 \pm 17.15$ , 만족도  $30.18 \pm 6.32$ , 일치도  $57.76 \pm 8.09$ , 응집도  $9.39 \pm 3.63$ , 애정 표현  $10.10 \pm 2.20$ 으로 나타났다(Table 4).

Beck 우울 척도상의 점수는  $8.74 \pm 6.67$ , 상태 불안 점수는  $18.60 \pm 10.36$ , 특성 불안 점수는  $20.44 \pm 7.65$ 로 나타났다(Table 5).

**3. 인구학적 자료와 부부 적응도와의 관계**(Table 6-8)  
연령과 결혼 기간은 부부 적응도의 네 가지 하위 요소 중 두 가지와 동일하게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두 변인 모두 애정 표현(연령,  $r = -.166$ ,  $p < .05$ ), (결혼 기간,  $r = -.157$ ,  $p < .05$ ), 응집도(연령,  $r = -.215$ ,  $p < .01$ ),

(결혼 기간,  $r = -.216$ ,  $p < .01$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교육 정도는 전체 부부 적응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160$ ,  $p < .05$ )을 보였으며, 하위 요소중에서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258$ ,  $p < .01$ )을 보였다.

가족의 소득은 전체 부부 적응도( $r = .213$ ,  $p < .01$ ), 만족도( $r = .272$ ,  $p < .01$ ), 일치도( $r = .180$ ,  $p < .05$ ) 및 응집도( $r = .165$ ,  $p < .05$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 형태와 부부 적응도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수와 딸머느리인지의 여부는 전체 부부 적응도 및 네 가지 하위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형태 중에서 부부 2인으로 구성된 가족은 만족도에서 부부와 자녀, 그리고 기타 가족으로 구성된 확대 가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F = 3.407$ ,  $p < .05$ ), 전체 부부 적응도와 응집도의 경우, 부부 2인으로 구성된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부부와 자녀, 기타 가족으로 구성된 확대 가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전체 부부 적응도 :  $F = 3.990$ ,  $p < .05$ , 응집도 :  $F =$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I)

	Mean	Maximum	Minimum
Age (year)	43.49	64	24
Educational level (year)	15.22	18	6
No. of children	1.89	4	0
No. of daughters-in-law	2.66	7	1
Rank in daughters-in-law	1.92	5	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sonality dimensions

	Mean $\pm$ SD
Psychoticism	$51.97 \pm 8.76$
Neuroticism	$44.37 \pm 11.31$
Extraversion	$50.89 \pm 10.85$
Lie	$53.26 \pm 7.87$

SD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dyadic adjustment scale

	Mean $\pm$ SD
Consensus	$57.76 \pm 8.09$
Satisfaction	$30.18 \pm 6.32$
Cohesion	$9.39 \pm 3.63$
Expression	$10.10 \pm 2.20$
DAS	$109.69 \pm 17.15$

SD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BDI and STAI scores

	Maximum	Minimum	Mean $\pm$ SD
BDI	33	0	$8.74 \pm 6.67$
State anxiety	58	0	$18.60 \pm 10.36$
Trait anxiety	46	4	$20.44 \pm 7.65$

SD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DAS and demographic data I

	Age	Educational level	Length of marriage	Number of son	Number of daughter
Consensus	-.011	.115	.010	-.058	-.023
Satisfaction	-.059	.258**	-.042	-.088	-.018
Cohesion	-.215**	.147	-.216**	-.071	-.082
Expression	-.166*	.103	-.157*	-.035	-.152*
DAS	-.100	.160*	-.081	-.090	-.049

\* :  $p < .05$ , \*\* :  $p < .01$

5.652,  $p < .01$ ). 또한 결혼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애정 표현( $r = -.223$ ,  $p < .01$ ), 응집도( $r = -.182$ ,  $p < .01$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종교와 직업의 유무는 전체 부부 적응도 및 4가지 하부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4. BDI, STAI 점수와 부부 적응도와의 관계 (Table 9)

BDI 점수는 부부 적응도 총점( $r = -.530$ ,  $p < .01$ ), 일치도( $r = -.430$ ,  $p < .01$ ), 만족도( $r = -.520$ ,  $p < .01$ ), 응집도( $r = -.395$ ,  $p < .01$ ), 애정 표현( $r = -.373$ ,  $p < .01$ )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STAI 점수는 state와 trait 모두 부부 적응도 총점 (state :  $r = -.447$ ,  $p < .01$ ), (trait :  $r = -.485$ ,  $p < .01$ ), 일치도 (state,  $r = -.336$ ,  $p < .01$ ), (trait,  $r = -.365$ ,  $p < .01$ ), 만족도 (state,  $r = -.525$ ,  $p < .01$ ), (trait,  $r = -.482$ ,  $p < .01$ ), 응집도 (state,  $r = -.299$ ,  $p < .01$ ), (trait,  $r = -.372$ ,  $p < .01$ ), 애정 표현 (state,  $r = -.353$ ,  $p < .01$ ), (trait,  $r = -.347$ ,  $p < .01$ )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5. 성격 차원과 부부 적응도와의 관계 (Table 10-12)

정신병적 경향성은 전체 부부 적응도 총점( $r = -.374$ ,  $p < .01$ ), 일치도( $r = -.356$ ,  $p < .01$ ), 만족도( $r = -.379$ ,  $p < .01$ ), 응집도( $r = -.256$ ,  $p < .01$ ), 애정 표현( $r = -.280$ ,  $p < .01$ )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전체 부부 적응도 총점( $r = -.260$ ,

$p < .01$ ), 일치도( $r = -.218$ ,  $p < .01$ ), 만족도( $r = -.263$ ,  $p < .01$ ), 애정 표현( $r = -.250$ ,  $p < .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응집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외향성, 허위성과 부부 적응도 총점, 일치도, 만족도, 응집도, 애정 표현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상관 분석결과,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부부 적응도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우울과 불안도 부부 적응도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우울과 불안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부부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 변인으로 1단계에서는 우울을, 2단계에서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3단계에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각각 투입하였다.

먼저 정신병적 경향성의 경우, 우울은 전체 부부 적응도를 29.7%, 만족도를 26.7%, 일치도를 20.2%, 응집도를 17.1%, 애정 표현을 14.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추가하였을 경우에는 만족도에서만 6.0%의 유의미한 설명량의 변화가 있었다. 정신병적 경향성을 추가하였을 경우, 전체 부부 적응도에서 3.3%, 만족도에서 2.5%, 일치도에서 3.9%의 유의미한 설명량의 변화가 있었고 응집도와 애정 표현에는 변화가 없었다. 표준화 회귀 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정신병적 경향성은 부부 적응도 총점( $B = -.194$ ,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DAS and demographic data II

	Religion	Job	Marriage of child	Family income
Consensus	-.125	-.106	-.047	.180*
Satisfaction	-.045	-.081	-.076	.272**
Cohesion	-.002	.030	-.182*	.165*
Expression	-.107	-.054	-.223**	.105
DAS	-.111	-.062	-.130	.213**

\* :  $p < .05$ , \*\* :  $p < .01$

**Table 8.** Correlation between DAS and family type

	Family type			F
	1. No child	2. Nuclear	3. Expanded	
Consensus	61.56	57.30	57.55	2.000
Satisfaction	33.56	30.08	28.27	3.407*
Cohesion	12.13	9.20	8.54	5.652**
Expression	11.13	10.02	9.88	1.985
DAS	120.38	108.96	105.40	3.990*

\* :  $p < .05$ , \*\* :  $p < .01$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DAS and BDI/STAI scores

	BDI	STAI (state)	STAI (trait)
Consensus	-.430**	-.336**	-.365**
Satisfaction	-.520**	-.525**	-.482**
Cohesion	-.395**	-.299**	-.372**
Expression	-.373**	-.353**	-.347**
DAS	-.530**	-.447**	-.485**

\* :  $p < .05$ , \*\* :  $p < .01$

**Table 10.** Correlations between DAS and personality dimensions

	Psychoticism	Neuroticism	Extraversion	Lie
Consensus	-.356**	-.218**	.033	-.070
Satisfaction	-.379**	-.263**	.121	-.072
Cohesion	-.256**	-.128	.079	-.138
Expression	-.280**	-.250**	.125	-.125
DAS	-.374**	-.260**	.101	-.083

\* :  $p < .05$ , \*\* :  $p < .01$

**Table 11.** Summary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ta	t	R <sup>2</sup>	ΔR <sup>2</sup>	ΔF
DAS	1. BDI	-.545	-7.499**	.297	.297	56.234**
	2. STAI (stait) (trait)	-.047 -.193	-.380 -1.578*	.324	.027	2.600
	3. Psychoticism	-.194	-2.583*	.357	.033	6.674*
Satisfaction	1. BDI	-.517	-7.140**	.267	.267	50.981**
	2. STAI (stait) (trait)	-.315 -.030	-2.621** -.250	.327	.060	6.127**
	3. Psychoticism	-.171	-2.306*	.352	.025	5.316*
Consensus	1. BDI	-.449	-5.931**	.202	.202	35.178**
	2. STAI (stait) (trait)	.038 -.192	.296 -1.500	.218	.016	1.386
	3. Psychoticism	-.213	-2.674**	.257	.039	7.150**
Cohesion	1. BDI	-.414	-5.431	.171	.171	29.494
	2. STAI (stait) (trait)	.095 -.250	.744 -1.960	.195	.024	2.059
	3. Psychoticism	-.080	-.983	.200	.006	.966
Expression	1. BDI	-.387	-5.029	.149	.149	25.290
	2. STAI (stait) (trait)	-.119 -.159	-.926 -1.235	.183	.033	2.906
	3. Psychoticism	-.126	-1.542	.196	.014	2.377

\* : p&lt;.05, \*\* : p&lt;.01

**Table 12.** Summary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I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ta	t	R <sup>2</sup>	ΔR <sup>2</sup>	ΔF
DAS	1. BDI	-.540	-7.518	.292	.292	56.526
	2. STAI (stait) (trait)	-.056 -.184	-.457 -1.537	.319	.027	2.662
	3. Neuroticism	.063	.720	.322	.003	.519
Satisfaction	1. BDI	-.514	-7.171	.264	.264	51.416
	2. STAI (stait) (trait)	-.315 -.041	-2.654 -.350	.327	.063	6.582
	3. Neuroticism	.080	.939	.331	.004	.882
Consensus	1. BDI	-.448	-5.989	.201	.201	35.873
	2. STAI (stait) (trait)	.035 -.178	.277 -1.420	.214	.014	1.249
	3. Neuroticism	.021	.228	.215	.000	.052
Cohesion	1. BDI	-.408	-5.400	.166	.166	29.162
	2. STAI (stait) (trait)	.074 -.233	.585 -1.850	.188	.022	1.920
	3. Neuroticism	.113	1.217	.196	.008	1.481
Expression	1. BDI	-.386	-5.070	.149	.149	25.707
	2. STAI (stait) (trait)	-.101 -.153	-.793 -1.212	.177	.029	2.525
	3. Neuroticism	-.051	-.542	.179	.002	.293

\* : p&lt;.05, \*\* : p&lt;.01

$p < .05$ ), 만족도( $B = -.171, p < .05$ ), 일치도( $B = -.213, p < .01$ )와 높은 연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응집도, 애정 표현과는 연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우울은 전체 부부 적응도를 29.2%, 만족도를 26.42%, 일치도를 20.1%, 응집도를 16.6%, 애정 표현을 14.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추가하였을 경우,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을 추가하였을 경우 모두 유의미한 설명량의 변화가 없었다. 표준화 회귀 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신경증적 경향성은 부부 적응도 총점 및 4개의 하위 요인 모두와 연관을 보이지 않았다.

회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울과 불안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은 전체 부부 적응도 및 하위 요인 중 만족도와 일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은 우울과 불안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부 적응도 총점 및 각 하위 요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 찰

인간의 정신 건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부 관계의 만족도나 적응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개념과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부부 적응도라는 개념은 가족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다<sup>35)</sup>. 1929년 미국의 Hamilton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부부 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1970년대에 Spanier 등은 결혼 적응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Spanier와 Cole<sup>35)</sup>에 의하면 부부 적응이라는 개념은 질적으로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부부 관계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 부적응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횡단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종단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Eysenck<sup>36)</sup>의 성격 이론은 개인들의 성격 차이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Pavlov<sup>37)</sup>의 흥분-제지 과정과 고전적 조건화를 기초로 하여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허위성 같은 생물학적 성격차원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서 성격 차원 검사<sup>23)</sup>를 개발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정상과 이상은 연속적인 차원이며, 정신병과 신경증은 양적인 상태에서 다를 뿐이고 이는 EPQ의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의 점수에 반영된다고 하였다<sup>38)</sup>.

본 연구는 EPQ와 DAS의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Eysenck의 4가지 성격 차원과 Spanier의 부부 적응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인들과 부부 적응도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보았으며, 우울과 불안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격 차원이 부부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연령이 높고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부부간의 애정 표현 정도가 낮고 부부간의 응집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결혼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한 Adams<sup>39)</sup>의 지적과 부합되는 것으로, 젊은 연령층의 부부들보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관습에 더 익숙한 나이 든 연령 층 부부의 특성상, 부부간의 직접적인 애정의 표현을 꺼려하고 부부가 같이 특정한 활동을 하는 빈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도 이인수와 유영주는<sup>40)</sup> 결혼 생활이 오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결혼의 만족도가 낮음을 제시한 바 있다.

소득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주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가족 소득은 여러 인구학적 요인 중 부부 적응도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및 하위 요인 부부간의 만족도, 일치도, 응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부부간의 적응도가 높다는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다<sup>40-42)</sup>.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전통적인 가치의 붕괴로 인해 경제적인 성공도가 사회적인 성공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전용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진출이 서구 사회에 비하여 미약하고 여성의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한 한국 현실에 비추어,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와 부부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의 국내 연구<sup>43)</sup>에서도 같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통해서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득 증가와 부부 적응도가 강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인구학적인 특성인 가족의 형태와 부부 적응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만며느리인지의 여부는 전체 부부 적응도 및 네 가지 하위 요인과 별다른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미숙<sup>44,45)</sup>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만며느리 역할이나 고부간의 갈등이 부부간의 적응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조사 대상자들 중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은 것도 한 이유일 수 있다. 동거 가족의 형태는 부부 적응도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부부만 사는 가족의 경우는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전체 부부 적응도와 부부간의 만족도, 부부간의 응집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가 없는 가족의 경우 부부의 연령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에 따른 부부 적응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이 없을 때 부부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결혼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부간의 애정 표현, 부부간의 응집도는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대상군의 연령, 결혼 연수와 부부간 애정 표현, 응집도와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서, 결혼한 자녀가 많다는 것과 연령의 증가, 결혼 기간의 증가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가족 형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sup>46-48)</sup>, 이는 각 연구들에 있어서 동거 가족원의 명시 등 가족 형태의 측정 범위가 상이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종교는 부부간의 적응도와 별다른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종교가 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경우<sup>49)</sup>, 종교가 없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경우<sup>50)</sup> 등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다중비교 등 적합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대상군에서 특정 종교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분포간의 비교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취업 유무와 직업은 부부 적응도와 별다른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의 취업이 부부간의 문제와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보고<sup>48,49,51)</sup>, 취업 여성에서 부부간의 적응도가 높다는 보고<sup>42,52)</sup>, 취업 여성에서 부부 적응도가 더 낮다는 보고<sup>53)</sup>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직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았거나 통계기법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취업 유무나 직업 자체보다도 취업 동기, 직업 만족도, 취업에 대한 가족의 태도, 가사 분담 정도 등 취업과 관련된 요소들의 차이가 부부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 결과, 부부 적응도는 Eysenck의 성격 차원 중에서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과 강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ysenck의 성격 차원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충동적이며 고독을 즐기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격성, 동정심 부족, 정서적인 냉담성, 타인에 대한 감정의 둔감, 자기 중심적인 경향<sup>26,28)</sup> 등을 공통적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할수록 부부간의 의견일치, 만족, 애정의 표현, 부부간의 응집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Zaleski<sup>54)</sup>는 EPQ 상의 높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결혼에서의 만족도를 낮춘다고 보고한바 있다. 비록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실제 정신 질환에 이환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차원의 공통적인 소인들로 인한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긴밀한 대인 관계인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차원의 점수의 해석에 있어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성격 특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여야한다<sup>19)</sup>.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가 심하며, 정신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고, 정서 변화가 심하여 쉽게 우울하여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Taylor<sup>55)</sup>의 외현 불안 검사에 의해 측정된 특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우울, 피로, 긴장 같은 부정적 정서와 높은 상관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강직한 편이다<sup>56)</sup>. 또한 일단 손상된 정

서상태를 쉽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소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데<sup>26)</sup>, 본 연구의 상관 분석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부부 적응도 총점, 부부간의 일치도, 부부간의 만족도, 부부간의 애정 표현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의 특징인 부정적인 정서 경험과 예민함으로 인해 부부간의 적응에 장애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Cramer<sup>57)</sup>는 EPQ 상의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부부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의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Libman 등<sup>58)</sup>은 결혼의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경우 높은 신경증적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부간의 관계는 우울이나 불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우울과 불안은 부부 적응도 총점과 각 하위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통해 우울과 불안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격 차원이 부부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상관 관계에서 부부 적응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던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불안과 우울의 영향을 통제하고 나면 부부 적응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적 경향성의 경우는 부부 적응도 총점, 만족도, 일치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응집도와 애정 표현의 경우 그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경증적 경향성 자체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 상태를 반영하는 부분이 크며, 일반적으로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정서가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울 불안 점수와 부부 적응도 사이의 강한 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개인은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매개로 하여 부부 적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외향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며 친구가 많고, 항상 기분이 좋으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활동적이며 긍정적이다. 이 차원의 점수가 극단적으로 높을 경우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경악 반응이 약하고, 소음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이 크며,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여 부정적인 기분으로 잘 빠지지 않는다. 항상 기분이 좋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고 모험심이 많고 농담에 능하

며 활동적이고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p>26,59-61)</sup>. Mascie-Taylor과 Gibson<sup>62)</sup>은 부부간의 외향성 정도가 비슷한 부부가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은 여성에서의 부부 적응도와 별다른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Zaleski와 Galkowska<sup>63)</sup>도 신경증적 경향성과 달리 외향성은 결혼의 행복과 연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허위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노출을 억제하며, 소박한 사회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4)</sup>. 한때 이 척도는 괴짜사자가 검사 장면에서 자신을 위장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순응성과 허위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64-66)</sup>. 본 연구에서는 허위성은 부부 적응도와 별다른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면, 본 논문에서는 기혼 여성에 있어서 부부간의 적응도와 성격 차원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부간의 적응도 및 그 하위 요인들은 특정 성격 차원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비록 양자간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지라도, 양자간에 일정한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조사 대상군이 경험하는 부부 적응에서의 문제가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밝힘으로서 정신과적인 치료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탐색의 중요함과 치료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환자 증상의 호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성격이란 일생동안 유지되는 행동 양식이지만, 부부관계는 환경이나 생활상의 사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의 것인데도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의 크기가 작고, 추출된 표본이 서울과 신도시의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의 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추출된 연구 대상 중에는 고학력군과 특정 종교군이 많아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평가에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연구<sup>67-69)</sup>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성 위주의 현대 사회 구조에

그 원인이 있고 결혼 생활이 여성에게는 보다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Robin 등<sup>70)</sup> 등은 결혼 생활이 불행한 부부일수록 부부간의 EPQ 결과 차이가 크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 Arrindell 등<sup>71)</sup>은 부부간의 성격이 유사할수록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 높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향후 무작위적으로 추출된 보다 다양하고 큰 표본 대상을 통해 부부 모두에게서 부부 적응도와 결혼 전후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부 관계의 탐색 및 치료에 기초 자료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부부 적응도와 성격 차원의 연관이 정상 대조군과 정신과 질환군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 론

본 연구는 170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부부 적응도와 성격 차원, 우울 정도와 불안 정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격차원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평균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51.97 \pm 8.76$ , 신경증적 경향성이  $44.37 \pm 11.31$ , 외향성이  $50.89 \pm 10.85$ , 허위성이  $53.26 \pm 10.87$ 점이 었다. 부부 적응도 총점과 하위 요인의 평균은 총점이  $109.69 \pm 17.15$ , 만족도  $30.18 \pm 6.32$ , 일치도  $57.76 \pm 8.09$ , 응집도  $9.39 \pm 3.63$ , 애정 표현  $10.10 \pm 2.20$ 이 었다.

1) 연령과 결혼 기간이 증가할수록 부부간의 애정 표현과 응집도는 감소하였다. 학력의 증가에 따라 전체 부부 적응도와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가족 소득이 많을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및 만족도, 일치도, 응집도가 증가하였다. 자녀의 수와 맘머느리인지의 여부는 전체 결혼 만족도 및 네 가지 하위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부부만 사는 가족은 전체 결혼 적응도, 만족도, 응집도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그리고 기타 가족이 포함된 확대 가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성격 차원 검사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만족도, 일치도, 애정 표현, 응집

도가 감소했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만족도, 일치도, 애정 표현이 감소하였다. 외향성과 허위성은 전체 부부 적응도 및 각 하위 요인과 별다른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우울과 상태-특성불안이 증가할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만족도, 일치도, 애정 표현, 응집도는 감소하였다.

4) 위계적 다중 분석 결과,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전체 부부 적응도, 만족도, 일치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 개인의 성격은 부부간의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결혼 문제를 다룰 때 치료자는 개인의 성격 측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부부 적응도와 성격 차원의 연관이 정상 대조군과 정신과적 질환군 사이에, 그리고 부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Williamson RC(1967) : Marriage and Family Rel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p8
- 2) Bowman HA(1970) : Marriage for modern, McGraw-Hill, New York, p72
- 3) 유영주(1977) : 가족 관계학, 서울, 수학사, p139
- 4) Dyer WG, Urban D(1958)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qualitarian family norms, Marriage and family living 20 : 53-58
- 5) 서동인, 정현숙(1994) :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도시 가족의 부부 관계. 한국 가족 상담 교육 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연구보고서, 제1권
- 6) 김규식(2000) :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 학생생활 연구 5, 1
- 7)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1998) : 한국의 보건복지표
- 8) 조두영(2001) : 행동 과학-의사와 환자, 서울, 일조각, pp196-218
- 9) Baker B, Helmers K, O'Kelly B, Sakinofsky I, Abelsohn A, Tobe S(1999) : Marital cohesion and ambulatory blood pressure in early hypertension. Am J hypertens 12 : 227-230
- 10) Hunter AGW(1998) : Some psychosocial aspects of non-lethal Chondrodysplasias. Am J Med Genet 78 : 17-21
- 11) Simkins-Bullock J, Wildman BG, Bullock WA, Sugrue DP(1992) : Etiological attributions, responsibility attributions, and marital adjustment in erectile dysfunction

- patient. *J Sex Marital Ther* 18 : 83-103
- 12) Northouse LL, Templin T, Mood D, Oberst M(1998) : Couple's adjustment to breast cancer and benign disease :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oncology* 7 : 37-48
  - 13) Beach SRH, Sandeen EE, O'Leary KD(1990) : Depression in Marriage, New York, Guilford Press
  - 14) Gotlib IH, Whiffen VE(1989) : Stress, coping,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with a depressed wife. *Can J Behav Sci* 21 : 401-418
  - 15) Weiss RL, Avid BM(1978) :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s predictors of physical health status. *J Consult Clin Psychol* 46 : 1379-1384
  - 16) Levkovitz Y, Lamy D, Ternoichiano P, Treves I, Fenig S(2003) : Perception of Dyadic relationship and emotional states in patients with affective disorder. *J Affect Disord* 75 : 19-28
  - 17) 김은경, 이호택, 백주희, 이상연, 홍종문, 이재원, 김선무, 허통욱(1999) :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와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8 : 702-712
  - 18) 이동원(1988) :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연세대학교
  - 19) 김인숙(1988) :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 제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서울대학교
  - 20) Shackelford TK(2001) : Self-esteem in marriage. *Pers Individ Dif* 30 : 371-390
  - 21) 노은여(1997) : 결혼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의 변동성이 기혼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고려대학교
  - 22) 이종숙(1988) : 주부의 내외 통제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건국대학교
  - 23) 이정연(1987) :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 : 105-117
  - 24) Eysenck HJ(1947) : Dimension of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25) 시빌 아이젠크, 이현수(1985) : 성격차원 검사 요강.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26) Eysenck HJ, Eysenck SBG(1975) :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27) Barrett P, Eysenck SBG(1984) : The assessment of personality factors across 25 countries. *Pers Individ dif* 5 : 615-632
  - 28) 이현수(2000) :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 29) Spanier GB, Cole CL(1976) :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Ph.D. thesis).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30) 이민식, 김중술(1996) : 부부 적응 척도의 표준화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5 : 129-140
  - 31) Lewis RA, Filsinger EE, Conger RA, McAvoy P(1981) : Love relationships among heroin-involved couples : Traditional self-report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 Assessing marriage : New behavioral approaches. Ed by Filsinger EE & Lewis RA, Beverly Hills, CA : Sage Pub. Inc
  - 32) Margolin G(1978) : Relationships among marital assessment procedures. *J Consult Clin Psychol* 46 : 1556-1558
  - 33)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이병관, 장필립, 윤애리(1995) : 한국판 BDI 우울척도의 표준화 연구 I : 신뢰도 및 요인분석. *정신병리학* 4(1) : 77-95
  - 34)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 : Spielbu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 심리학회 발표 논문집*, pp505-512
  - 35) Spanier GB, Cole CL(1976) : Toward cla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marital adjustment. *Int J Sociol Fam* 6 : 121-146
  - 36) Eysenck HJ(1967) :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이유정(1992) : 양성 및 음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차원적 성격 특성. 외향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성격 및 개인차 연구 1 : 29-43에서 재인용
  - 37) Pavlov IP(1928) : Conditioned reflexes. 이유정(1992) : 양성 및 음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차원적 성격 특성. 외향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성격 및 개인차 연구 1 : 29-43에서 재인용
  - 38) Eysenck HJ, Eysenck MW(1985)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 A national science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39) Adams BN(1986) :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 40) 이인수, 유영주(1986) : 결혼 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 1-14
  - 41) 박미령(1988) :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일연구(박사학위). 고려대학교
  - 42) 이선주(1988) : 기혼여성의 결혼관과 그에 관련된 결혼 만족도(석사학위). 이화여대
  - 43) 이미숙(1997) :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 요인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17 : 87-105
  - 44) 이미숙(1985) : 자녀의 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 : 151-168

- 45) 이미숙(1987) : 성격할 개념 분리 측정에 관한 연구(II). 생활과학연구논집 7 : 9-31
- 46) 유영주(1977) : 한국 도시 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4 : 1-11
- 47) 서동인(1985) : 취업주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박사학위). 서울대학교
- 48) 김명자(1977) : 주부의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서울대학교
- 49) 강은령(1989) : 부부의 결혼적응에 대한 연구(석사학위). 이화여대
- 50) 노영남(1982) : 환경 및 부부관계 만족도가 부인의 성격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연구(석사학위). 부산대학교
- 51) 이호금(1987) : 여성의 취업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서울여대
- 52) 정순현(1987) :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부부역할 인지와 결혼 만족도(석사학위). 영남대학교
- 53) 김명자(1985) :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 139-166
- 54) Zaleski Z(1981) : Psychoticism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 Individ Dif 2 : 245-246
- 55) Taylor JA(1953) :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 Abnorm Soc Psychol 48 : 285-290
- 56) 이유정(1995) : 성격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성격 및 개인차 연구 4 : 55-72
- 57) Cramer D(1993) : Personality and marital dissolution. Pers Individ Dif 14 : 605-607
- 58) Libman E, Takefman J, Brender W(1980) : A comparison of sexually dysfunctional, maritally disturbed and well-adjusted couples. Pers Individ Dif 1 : 219-227
- 59) Ljubin T, Ljubin C(1990) : Extraversion and automotor reflexes. Pers Individ Dif 11 : 977-984
- 60) Dornie S, Ekehammar B(1990) :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noise sensitivity. Pers Individ Dif 11 : 989-992
- 61) Steimack RM(1990) : Biological bases of extraversion : Psychophysiological evidence. J Pers 58 : 293-311
- 62) Mascie-Taylor CG, Gibson JB(1979) : A biological survey of a Cambridge suburbs : Assortative marriage for IQ and personality traits. Ann Hum Biol 6 : 1-16
- 63) Zaleski Z, Galkowska M(1978) : Neuroticism and marital satisfaction. Behav Res Ther 16(4) : 285-286
- 64) Pearson PR, Francis LJ(1989) : The dual nature of Eysenckian Lie scale : Are religious adolescents more truthful? Pers Individ Dif 10 : 1041-1048
- 65) Francis LJ(1991) : The dual nature of the EPQ lie scale among college students in England. Pers Individ Dif 12 : 1255-1260
- 66) Francis LJ, Brown LB, Pearson PR(1991) : The dual nature of the EPQ lie scale among college students in Australia. Pers Individ Dif 12 : 989-991
- 67) 이미숙(1997) :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요인 연구 : 가족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17 : 87-105
- 68) 대한가정학회(1990) :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II. 아동학, 가정학, 교문사
- 69) Fowers BJ(1991) : His and her marriage : A multivariate study of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Sex Roles 24 : 209-221
- 70) Robin JH, Wells RA, Wells PA(1991) : Personality similarity and quality of marriage. Pers Individ Dif 12 : 407-412
- 71) Arrindell WA, Luteijn F(2000) : Similarity between intimate partners for personality traits as related to individual levels of satisfaction with life. Pers Individ Dif 28 : 629-637

## Relationship between Dyadic Adjustment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Married Women

Hyo-Geun Lee, M.D., Sook-Haeng Joe, M.D., Jung-Woong K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 Marriage is one of the major life events and the primary source of individual happiness and meaning of life.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who will marry whom and which marriage will be successful. Marital adjustment has significant influences on an individual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i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Good marital quality may imply good general relationship.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correlate with or predict good marital quality. Especially individual personality factors may be a major factor in achieving and maintaining marital stability,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dyadic adjustment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urban married women.

**Methods** : Dyadic Adjustment Scale, Eysenck's Personality Questionnaire,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215 married women. Data analysis was based on 170 women who provided reliable information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demographic data and 4 scales were obtained. Then the possible relationships between each data were tested by calculating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s. To test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dyadic adjustm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Results** : Age and length of marriag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ffectional expression and dyadic cohesion. Educational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otal dyadic adjustment score and dyadic satisfaction. Family incom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otal dyadic adjustment score, dyadic consensus, dyadic satisfaction and dyadic cohesion. Different family type showed different total dyadic adjustment score, dyadic satisfaction and dyadic cohesion. Psychoticism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otal dyadic adjustment score, dyadic consensus, dyadic satisfaction, affectional expression and dyadic cohesion. Neuroticism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otal dyadic adjustment score, dyadic consensus, dyadic satisfaction and affectional expression. Extraversion and lie were not correlated with any factors.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cor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otal dyadic adjustment score, dyadic consensus, dyadic satisfaction, affectional expression and dyadic cohesio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psychoticism was correlated with dyadic adjustment.

**Conclusion** :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length of marriage,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and family typ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yadic adjustment. Psychoticism and neuroticism measured by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yadic adjustment. But the correlations with extraversion and lie were not significant. Especially correlation between neuroticism and dyadic adjustment seemed to be mediated by emotional state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sonality factors may be involved in marital relationship and that clinician must consider personality aspect in dealing with marital problems. Future study abou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group and psychiatric patient group will be needed.

**KEY WORDS** : Marriage · Personality.